



EUROPEAN  
LEADERSHIP  
NETWORK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전략적 리스크와 핵 비확산 정책의 영향

호주의 관점

마이클 코헨

2023.02.

# 저자 소개



**마이클 코헨**

*호주국립대학교*

*크로포드*

*공공정책대학원의*

*국가안보대학 부교수*

마이클 코헨은 국가 안보 대학 박사 과정의 의장입니다. 인도-태평양에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제 안보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관심 분야에는 핵 무기 확산과 국제 동맹 역학의 무장 국가 간 갈등의 원인과 시사점, 정치 지도자의 역할과 그들이 외교 정책 의사 결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보안 문제에서의 신호전달과 강압 효과를 포함합니다. 경험적으로 한반도, 남아시아, 중국, 미국 및 미국-호주 동맹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괄 요약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과  
핵무기를 호주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호주와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 호주의 전략적 위협에 대한 인식

- 호주는 중국이 캔버라가 직면한 많은 전략적 위협과 위협의 많은 부분(전부는 아님)을 주도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중국에 대한 정책에 양당의 수렴이 있습니다
- 호주는 중국이 캔버라가 직면한 많은 전략적 위협과 위협의 많은 부분(전부는 아님)을 주도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중국에 대한 정책에 양당의 수렴이 있습니다
- 호주는 미국-호주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호주에 있는 미군 기지와 정보 시설이 이 지역에서 미군 시스템 작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호주가 그러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호주의 대중이 어느 정도로 미국을 지지할 지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 핵무기에 관한 호주의 태도

- 호주의 국가 안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다른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획득하기 위한 AUKUS 협정이었습니다.
-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실제로 원자력과 아마도 핵무기를 호주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많은 나라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장려해 NPT 에 대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 호주 정부가 세계 핵 비확산 체제의 강력한 지지자이고 핵무기를 추구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후임자들이 다른 야망을 품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핵 비확산 체제의 미래

- 핵무장한 호주는 매우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이지만 만약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분쟁에서 호주의 불충분한 개입에 의해 미국-호주 동맹의 지속이 위협을 받는다면 미국-호주의 동맹 지속성과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호주의 전략적 위협 인식: 변화 가운데의 연속성

호주의 자유당과 노동당의  
전망을 한 데 모이게 하는  
힘은 최근 중국의 외교와  
국방 정책입니다.

알바니스 노동당 정부는 집권한 지 1 년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 우선 순위 및 전략적 위협 인식은 아직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현 노동당 정부가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주요 윤곽은 이전의 모리슨 및 턴불 진보 정부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주제에 대해 호주의 핵심 성명 은 2017 년 상그릴라 대화에서 턴불이 "이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는 만일 모든 나라가 강압이나 간섭을 떠나 자국의 운명을 추구할 수 있을 때만 달성될 수 있는 상태이다."라며 지지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sup>1</sup>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과의 회의에서 알바니스 총리는 호주와 중국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반대 해야 하는 곳에는 반대하고, 국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sup>2</sup> 턴불 전 총리와 모리슨 전 총리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호주의 자유당과 노동당의 전망을 한 데 모이게 하는 힘은 최근 중국의 외교와 국방 정책입니다. 코로나-19 발 병 이후 -또는 더 빠르면 턴불의 상그릴라 연설 이후에- 언제라도 10 명의 호주 국가 안보 전문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그들에게 호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 리스트 10 개를 요청한다면 중국은 이러한 100 가지 위협에서 적어도 3 분의 2 는 차지할 것 입니다. 많은 호주인들은 중국의 지구 온난화와 인권 침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북한에서의 위기와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국-인도 국경, 센카쿠 열도와 다른 곳에서의 영토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베이징의 경제적 위협 및 강압과 함께 현행 미국 시스템의 대안으로 인도-태평양에 관한 일대일로(BRI) 의 비전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0 년 전에는 중국이 유용한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외교와 국방 정책을 못 본 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호주인을 찾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의 구체적인 우려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심지어 제거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대부분의 호주 관측자들에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인식되는 우려로 중국 측의 의도는 호주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미국과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캔버라를 끌어들이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힘에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작용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 어떤 전쟁에서든 미국-호주 간 동맹의 역할은 단순히 미국과 호주의 힘을 더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러한 곱하기 효과에 대해 알고 있으며, 호주 주재 미군 기지나 합동 시설 등이 미중 간 전쟁에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호주 국가 안보 전문가들이 최근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보다 구체적인 우려 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쟁 예상과 그로 인한 호주에 생길 첨예한 선택적 대안 입니다.<sup>3</sup> 현재 많은 사람들이 중국 군대가 몇 년 안에 수륙양용으로 대만섬을 침략하기 시작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쟁 예상과  
호주에 생길 침예한  
선택적 대안입니다.**

만약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캔버라가 이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할 경우, 자유당과 노동당의 호주 국가 안보정책의 중심인 미국-호주 간 동맹이 파기되거나 최소한 약화시킬 것이라도 바이든 행정부이든 그 후임자들이든 호주에 경고할 것입니다.

호주에 있는 미군 기지와 정보 시설이 이 지역에서 미군 시스템 작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호주는 미국 측의 어떠한 분쟁에도 연루될 확률이 큼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에서 너무 멀리 나아가는 것은 호주가 최근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함께 겪은 것보다 몇 배 더 위험하고 파괴적으로 중국과 전쟁에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으면 호주가 나중에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캔버라는 훨씬 더 강력하고 보다 위협적인 적들을 독립적으로 상대 해야 할 만큼 미국-호주 동맹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22 로위 인스티 튜트 여론 조사에 따르면 많은 호주인들이(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미국-호주 동맹과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강력한 역할을 위해 중국과 싸울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는 호주가 실제로 싸워야 한다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sup>4</sup> 시드니대학의 미국 연구 센터에서 시행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는 데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5</sup> 미국-호주 동맹의 전문은 "태평양 지역"의 공동의 위협에 캔버라와 워싱턴이 "대응"하는 것만 약속했으며, 바로 이것이 호주가 가진 애매한 동맹인 것 입니다.<sup>6</sup>

이런 근본적인 위협과 그것이 제시하는 선택적 대안은 핵무기의 확산과 비확산 조약(NPT)에 제기되는 위협을 포함한 호주의 가장 시급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호주의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대중은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과 핵무기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협을 중국 문제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sup>7</sup> 호주인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데 미국에 기대를 걸기 때문에 중국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워싱턴에 기대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호주를 겨냥한 더 위협적인 움직임의 대부분이 경제적 제재와 위협, 특히 호주 주재 중국인에 대한 내정 간섭, 호주의 민주주의 제도의 훼손을 포함하는 방향을 보여 왔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호주의 행정부와 일부 호주 언론이 중국의 핵무기와 핵무기의 현대화, 핵 미사일에 대해 더욱 우려를 표시하여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 중 하나는 냉전 시대중에도 많이 나타난 것과 같이 호주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sup>8</sup>

핵무기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호주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호주 지도자들은 북한의 다른 적대국들과도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을 주시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턴불은 호주를 언급한 2016 년의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캔버라와 워싱턴은 "일심 동체"라고 말했습니다.<sup>9</sup> 알바니스 행정부는 북한의 최근에 빈발했던 미사일 시험에 대해 침묵하였는데, 호주에서 가장 큰 핵 위협으로 중국이 북한을 추월한 것으로 보여 그 침묵은 주목할 만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논쟁 중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집착이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시도를  
공격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연이은 정부에서 양당 지지를 얻은 몇 가지 다른 우려점으로 중국과의 재조정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을 포함하여 미국-호주 동맹의 수용, 만약 미국의 핵무기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중국과의 재래식 혹은 핵 전쟁의 위협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수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예를 들어 호주에 있는 미국 시설과 기지의 업그레이드와 같은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길라드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200명 이상의 미군 병력이 호주 북부를 순환 근무하기로 동의한 이후 현재 2000명 이상의 미군이 매년 3월과 10월 사이에 다윈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미국 핵 무장 B-52 폭격기의 순환 주둔이 캐서린에 위치한 RAAF 베이스 틴달에서도 증가할 것이며, 미국 군사 역량 개선 계획에 따라 상호 운용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비행장, 연료 저장 시설, 숙박시설 및 훈련 지역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모리슨 총리의 임기 말, 미군 고위 사령관들의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정찰과 정보 수집의 중심지인 북부 지역 파인 갭 시설의 방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sup>10</sup> 일본과 괌의 취약한 기지와 달리 현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미사일의 여러 사정 거리 밖인 틴달은 어쩌면 핵폭격기의 중요한 미군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과 그 외의 기지 그리고 시설은 어떠한 위기나 분쟁 사건에서 중국의 주요 타겟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정치 갈등이 격렬했던 냉전 초부터 호주의 정책 결정자들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강력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3분의 2에서 4분의 3 사이의 호주인들은 이러한 미군 주둔이나 심지어 그 보다 더 큰 주둔을 지지하거나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sup>11</sup> 2022년의 로위 인스티튜트 여론 조사에서 호주인의 87%가 미국-호주의 동맹이 호주에 매우 중요하거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호주인의 51%는 중립을 선호하는 반면 46%는 호주가 분쟁에서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sup>12</sup>

만일 대만 분쟁 및 그와 관련된 문제가 호주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했다면, 호주정부는 핵무기에 관해서도 난처한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캔버라는 핵 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동맹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미국이 핵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캔버라는 또한 핵 무기 확산 방지와 핵 비확산 조약에 위협이 되는 미국과 다른 핵 보유국에 대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케일 라이버와 대릴 프레스가 반무력혁명이라 부른, 미국 핵무기의 정확도와 치명도의 증가가 중국과 러시아 무기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이성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전략적 현실을 일부에서는 불편해 할 것입니다.<sup>13</sup>

호주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핵무기, 러시아와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호주인들은 러시아가 더 이상 인도-태평양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최근 사건들로 인해 호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논쟁 중에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집착이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시도를 공격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 해협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며 그렇게 함으로써 호주 역시 위험에 빠트릴 것입니다. 푸틴이 육지에서 난관에 부딪힌다면 시진핑도 물 위나 아래에서 푸틴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역경을 겪을 것이 라는 현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습니다. 처음부터 이 서로 전혀 다른 두 나라의 분쟁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국에게 받은 지원과 러시아가 부딪힌 어려움들이 더욱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지 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주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것은 호주인들이 대만과 중국의 충돌이 캔버라를 끌어들이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줍니다.<sup>14</sup>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호주의 접근 방식에 최근 추가된 요소는 일본의 더 큰 역할을 고려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QUAD 로 알려진 인도가 포함된 4 개국 전략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부터 호주는 한국, 베트남,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를 포함한 같은 안정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질서라는 목표를 함께하는 호주의 파트너 네트워크를 확장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협력 분야에는 공급망 취약성 해결, 알맞은 가격의 필수 광물 및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 팀의 역할이 필요한 기후 변화 및 다른 초국가적인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호주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다국적 노력 개발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알바니스의 인도와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강화, 10 월 22 일 호주-일본 간 안보 협력 공동 선언, 그리고 오만-호주 해저 케이블은 모두 그의 진보당 전임자들이 남긴 자리를 이어 받는 것입니다.

# 핵무기에 대한 호주의 태도

호주의 국가 안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프랑스와 한 잠수함 매입  
협정을 취소한 모리슨  
정부의 결정과 캔버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취득을 위해 미국, 영국과  
새로운 협정 인 AUKUS 를  
체결한 것입니다.

호주의 국가 안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프랑스와 한 잠수함 매입 협정을 취소한 모리슨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캔버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취득과 다수의 다른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미국, 영국과 새로운 협정 인 AUKUS 를 체결한 것입니다. 호주는 비록 납품이 2030 년대 후반으로 추정되고 호주가 정확히 어떤 잠수함을 구매할 지 확실하지 않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약속 했습니다. 사실 모리슨의 첫 발표는 발표에서 말한 것만큼 말하지 않은 것도 그에 필적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경쟁자들의 잠수함 기술의 발전은 호주가 원자력 발전이 제공하는 무언의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많은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알바니스 행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지가 인도-태평양 전략적 문제들, 구체적인 핵 확산 위협,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sup>15</sup> 예를 들어 만약 2023 년 3 월이 아니라도 호주가 어떤 종류의 잠수함을 획득할 것인지는 그의 재임 기간 중에 거의 확실하게 명확해질 것입니다.<sup>16</sup>

저는 1976 년부터 2016 년 사이에 호주의 외교 정책과 미국에 대한 전략적 성향에 대해 미리 분석한 것에서부터 냉전 기간 동안, 냉전이 끝난 후 바로, 그리고 더 최근인 냉전 후 시기에 3 개의 자유당과 4 개의 노동당 행정부를 포함하는 40 년이라는 기간 동안 몇몇의 중요한 정당 기반의 차이점을 확인했습니다. 노동당 행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뒷받침 되는 경우에만 미국의 전쟁에 군사적 개입을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당 행정부는 다국간의 정책과 경제적 지역 제도의 형성과 강화를 지향하여 보다 더 노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당은 UN 다자간 공동 정책에 더해 미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자유당은 미국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주요 정당들의 핵무기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저는 세 번째 패턴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호주 노동당 행정부는 미국-호주 동맹이 주는 핵우산을 조용히 즐기면서 비핵지대, 핵무기 축소, 세계 핵 폐기 운동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유당은 미국이 호주와 한 잠재적인 확장 억제 약속에 대해 노동당 보다는 적극적이지만 여전히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핵 무기 축소 계획에 훨씬 적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핵 비확산, 핵 안전, 핵 보안, 핵무기 통제 및 핵무기 축소에 관한 호주의 최근의 접근 방식은 노동당이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더 미묘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초당파적인 면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므로 AUKUS 는 알바니스의 노동당 행정부를 흥미롭고 잠재적으로는 도전적인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알바니스 행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그의 진보적인 전임자들처럼 호주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강경하게 맞서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임 첫 날 도쿄에서 QUAD 회의에 참석하고, 한달 후에 NATO 정상 회의에 참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방문은 본질적인 것보다 보여주기 식일 수 있지만 동맹국, 파트너 및 경쟁자들에게 그의 행정부가 모리슨과 턴불 행정부의 대부분의 호주 안보 문제와 함께한다는 연속성을 내보이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인해 호주가  
원자력과 어쩌면  
핵무기까지 손에 넣는  
것이 조금 더 가까워질 지  
모릅니다.

호주의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가 모든 미국의 비 NATO 동맹국 중에 가장 크다는 사실은 (호주가) 러시아의 수정주의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AUKUS 는 몇몇의 오래된 노동당 가치와 충돌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모리슨, 알바니스 그리고 많은 호주인들이 핵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강조하지만 다른 행정부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몇몇 나라들이 그들을 믿을 지 모르지만 알바니스가 미래에 그의 후임자들과 뜻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만약 호주가 프랑스와의 거래에서 벗어나 전에 그랬던 것처럼 신속하게 AUKUS 에 가입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더 위협적인, 호주의 갑작스런 변화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정책 결정자들이 진심으로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것을 사실이라 믿는 것처럼, 존재하는 매우 견해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실 호주의 정직하고 도덕적인 핵 비확산 자격 보장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몇몇은 필요할 경우 다른 핵 프로그램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로 핵 물질들을 판매해 왔던 핵 대국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은 그런 보장계획을 수행해 왔습니다.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실제로 원자력과 아마도 핵무기를 호주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많은 나라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더욱 장려해 NPT 에 대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리슨, 알바니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미래의 호주 총리가 위협적인 미래의 위협에 핵무기를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요점은 모리슨이나 알바니스가 비밀 핵 프로그램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임자들이 잠수함 도킹과 핵물질 추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은 미국-중국 간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고 호주는 갈등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며, 동시에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미국 없이 맞서려 하지 않을 때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을 깨닫고 캔버라가 스스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손을 잡을지에 대해 그 이상의 확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바니스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그렇게 했다 믿지 않는 이 지역내 누구든지 핵 잠수함 개발의 길로 빠지는데 더 많은 동기부여를 느낄수 있다는 문제는 남습니다. 여기에서 명백한 사례는 당연히 자신들만의 핵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또 다른 압력에 직면해 있는 한국입니다. 그러므로 AUKUS 는 알바니스의 당이 오랫동안 반대한 핵비확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노동당이 마지막으로 집권 했을 때 중국은 현재보다 호주에 대한 위협을 드러내지 않았고 호주는 핵무기 제거를 위한 세계적인 핵 제로 캠페인의 주요 참가자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호주가 잠수함을 획득하기 까지의 15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동안 알바니스가 결정한 해결책이 무엇이든 호주에 핵 확산 위험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지도자의 이러한 선택적 대안에 대한 접근 방식은 국내 및 국제 청중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그들을 자극하는 위협의 정도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알바니스 행정부에게 추가 핵무기 확산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보여주라는 압박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자보다 북한에 훨씬 비타협적인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북한 핵 위기 및/또는 한국의 핵 보유가 알바니스에게 다시 노동당 핵 군축이나 폐지 계획을 시작하도록 만들든 AUKUS 에 관한 그의 이전 약속이나 그 외의 국가 안보 정책을 재고하게 하든 핵무기, 핵 확산,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그의 행정부의 더 깊은 태도를 언급할 것입니다.

# 핵 비확산 체제의 미래

미국-중국 분쟁 가능성이 핵 비확산 체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그런 갈등에 연루된 특정 국가와 갈등이 어디까지 고조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핵 비확산 체제와 호주의 동맹국 그리고 적들에게 핵을 가진 한국, AUKUS 및 미국-중국 갈등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냉전이 끝난 이후 북한만이 핵무기 개발에 애썼다는 사실은 기억해 볼만합니다.<sup>17</sup> 대량 확산과 핵의 한계점과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핵을 가진 한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평양과의 관계 뿐 아니라 한국과의 난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압박을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핵을 가진 한국은 NPT 에도 큰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것은 호주 정부가 핵 비확산, 군비 축소 및 NPT 와 남태평양비핵지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계속할 것인지 고심하도록 할 것입니다.

AUKUS 가 핵 비확산 체제에 가져올 영향은 호주가 효과적으로 스스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또는 강한 핵 관리를 다른 국가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은 캔버라가 최종적으로 구입할 잠수함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지정학적 위치 및 중국의 핵무기와 사면초가에 몰린 핵잠수함 상태에도 결국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도착하기 전에 호주의 콜린스급 잠수함에 대한 호주, 미국, 영국이 보다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내는 것과 어떻게 그들이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제공하는 산업 기반의 본질과 일부의 핵 및 다른 무기 시스템의 생산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도울 수 있는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중국 분쟁 가능성이 핵 비확산 체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그런 갈등에 연루된 특정 국가와 갈등이 어디까지 고조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해안에서 운용하는 미국 잠수함을 더욱 확실하게 위협할 중국 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고려하면 핵무기는 호주와 같은 국가에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은 미국이 겪는 모든 분쟁에서 비용 인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중국의 미사일 개발 발전은 또한 캔버라가 참가하는 모든 분쟁에서 호주가 지불할 비용을 인상시킬 것 같습니다. 미국-호주 동맹 하에 그런 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하여금 호주에게 한 약속을 재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호주정부는 중국이나 북한의 모든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과 관계없이 핵무기의 유용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문헌

- 1 “Keynote Address at the 16th IISS Asia Security Summit, Shangri-La Dialogue, Singapore”, 3 June 2017, <https://www.malcolmturnbull.com.au/media/keynote-address-at-the-16th-iiiss-asia-security-summit-shangri-la-dialogue>.
- 2 Prime Minister of Australia, “Meeting with China’s President Xi Jinping”, 15 November 2022: <https://www.pm.gov.au/media/meeting-chinas-president-xi-jinping>.
- 3 See, for example, Samantha Maiden, “Kevin Rudd warns of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armed conflict with China over Taiwan,” news.com.au, 22 November 2022, <https://www.news.com.au/finance/work/leaders/kevin-rudd-warns-of-catastrophic-consequences-of-armed-conflict-with-china-over-taiwan/news-story/e099bd0d009109b651263cbff0caa273>.
- 4 Lowy Institute Poll, 2022, <https://poll.lowyinstitute.org/report/2022/>.
- 5 Jared Mondschein and Victoria Cooper, “US Midterms 2022: The Stakes for Australia and the Alliance,”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26 October 2022, <https://www.usssc.edu.au/analysis/us-midterms-2022-the-stakes-for-australia-and-the-alliance>.
- 6 Security Treaty between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ZUS] (San Francisco, 1 September 1951), <http://www.austlii.edu.au/au/other/dfat/treaties/ATS/1952/2.html>.
- 7 로위 인스티튜트 여론 조사.
- 8 See, Bryant Hevesi, “‘Prepare for War:’ Peter Dutton issues ominous warning – as he says China is ‘on a very deliberate course at the moment,’” [skynews.com.au](https://www.skynews.com.au), 25 April 2022.
- 9 “Australia, U.S., ‘Joined at Hip:’ Turnbull,” SBS News, 11 August 2017, <https://www.sbs.com.au/news/article/australia-us-joined-at-hip-turnbull/9pr92h1h2>.
- 10 파인 캡은 군사 작전 및 드론 공격 대상 목록과 미사일 사일로 발사를 위한 신호 정보(SIGINT) 기반 지리 위치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 정보는 아직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미사일 사일로를 발견하고 타겟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노스웨스트케이프의 해군 통신소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잠수함과의 통신의 중심이다.
- 11 Annie Hesse, Dominic Giannini and Andrew Brown, “ADF plans to extend nuclear-capable bomber facilities in the NT,” *The Canberra Times*, 31 October 2022, <https://www.canberratimes.com.au/story/7964024/china-likely-to-perceive-bomber-expansion-in-australia-as-provocative/>.
- 12 로위 인스티튜트 여론 조사.
- 13 Keir Leiber and Daryl Press, *The Myth of The Nuclear Revolution: Power Politics in the Atomic A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0).
- 14 See, for example, John Kehoe, “Russia’s war in Ukraine is a wake-up call on Australia’s China risk,” *Australian Financial Review*, 2 March 2022, <https://www.afr.com/politics/federal/russia-s-war-in-ukraine-is-a-wake-up-call-on-australia-s-china-risk-20220228-p5a0c9>.
- 15 전직 호주 총리 턴불은 호주의 전략 자주성 감소를 근거에 두고 협상한 그의 정부의 프랑스 잠수함 거래에 대한 후손들의 선택에 역시 비판했습니다. Malcolm Turnbull, “Correspondence: Sleepwalk to War,” *Quarterly Essay 87*, <https://www.quarterlyessay.com.au/correspondence/malcolm-turnbull>. 参照。
- 16 Richard Marles, “Address to the Sydney Institute Annual Dinner Lecture,” 14 November 2022, <https://www.minister.defence.gov.au/speeches/2022-11-14/address-sydney-institute-annual-dinner-lecture>.
- 17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 시험하기 8년 전인 1990년부터 자국의 핵무기를 개발했다.





**EUROPEAN  
LEADERSHIP  
NETWORK**



**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